

국립마산요양원(Ⅱ)

—그 반세기의 찬연한 발자취—

김 대 규 / 본 협회 부회장

1946년 6월 1일 미군정하에서 문을 연 국립마산요양원은 반세기 동안 국립마산 결핵요양소, 국립중앙결핵요양소, 마산 결핵요양소, 국립마산병원,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결핵치료의 중심적 지위를 확고하게 지켜왔으며 흉곽성형술(胸廓成形術)과 폐 절제술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흉부외과 개척의 길을 열기도 했다.

또한 195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결핵약제 내성검사법을 연구 개발하여 화학요법 발전에 새 정기를 마련했다.

Smith박사는 그가 기거하던 마산요양원 구내의 거처에 오일스토브 과열로 화재가 났을 때 잠옷바람으로 황급히 뛰쳐나오면서도 어느새 늑막유착박리수술기를 안고 있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Smith박사는 광복후의 우리나라 결핵계 특히 국립마산요양원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1948년 대구동산병원장으로 전임하여 의료선교 감독직까지 맡아 활동했으며 대구의과대학에서 결핵학을 강

의하기도 했다.

1950년 정년으로 귀국한 후에도 5년간 미조리주 엑셀송상이군인병원 결핵부장으로 여생을 마쳤으며 1955년 위장절제 수술을 받은 후 백혈병으로 20개월에 걸친 투병생활 끝에 1957년 7월 31일 향년 73세를 일기로 캘리포니아주 헌팅톤 메모리얼병원에서 영면하였다. 가족은 부인 Laura Mclane Smith여사와 4남이 있었는데 장남 케네트, 차남 로벗, 삼남 로저는 의사이고 사남 엘벗은 과학자이다.

광복후 최초의 폐외과수술

곽인성(郭仁星)원장이 1947년 7월 도미하자 2대원장으로 취임한 문창모(文昌模)박사는 외과요법의 필요성을 내다보고 수술실과 의국이 있는 2층건물을 신축하였는데 Smith박사의 아이디어와 환자중 최요한이란 분이 설계를 하고 직원들이 해변에서 돌을 나르는 등 노역봉사를 하였으며 마산형무소 수감자들이 노력을 제공하여 1948년 7월 1일 준공을 보았다.

문창모(文昌模)원장은 원래 이비인후과 의사이지만 1932년 해주구세요양원장 Hall박사를 도와 크리스마스 썰 운동에 참여하는 등 결핵과는 인연이 깊었다. 20개월의 원장재임중 획기적인 요양원운영의 개선 말고도 또하나의 특기할 사항은 1948년 10월 6일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개척자인 대구의과대학 고병간(高秉

장 집도로 대구의과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역시 국소마취로 실시되었으며 유승화(劉承華), 이헌재(李憲梓)박사가 이 수술을 도왔다. 첫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국립마산요양원에서 보낸 환자였는데 수술후 다시 요양원으로 복귀하였다.

1949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71호로 요양원 명칭이 국립마산결핵요양소로 바뀌



▲ 1948년 국립마산요양소에서 환자와 함께. 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Smith 박사.

幹)학장을 초빙하여 세브란스 의과대학 외과에서 파견된 유승화(劉承華)박사를 조수로 광복후 최초의 흉곽성형술(胸廓成形術)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이다.

1949년 5월 5일에는 한국 최초의 전폐적출술(全肺摘出術)이 고병간(高秉幹)학

고 직제가 공포되었는데 1949년 10월 15일 다시 대통령령 제104호로 국립중앙결핵요양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5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537호로 또다시 명칭이 마산결핵요양소로 바뀌었다.

1948년 도미하여 흉부외과(胸部外科)

■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요양소 운영도 점차 궤도에
 오르고 환자치료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던중
 1950년 6월 25일 불의의
 6.25 동란이 발발하여
 요양소는 일대 혼란과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

를 전공하고 다음해에 돌아온 이완영(李玩永)의무과장이 1949년 7월 4대소장으로 승진하여 미국에서 배워 온 새로운 폐수술 즉 늑막을 박리하여 그 공간에 류사이트 불을 넣어서 병집이 있는 폐를 압축시키는 합성수지구충진술(合成樹脂球充填術)을 시작하였으나 합병증과 예후 불량으로 곧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구의대 학장 고병간(高秉幹)박사와 유승화(劉承華)박사와 함께 20례 가까운 흉곽성형술을 시행했으며, 또한 고병간(高秉幹)박사에 이어 유승화(劉承華)박사와 둘이서 폐절제(적출)술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1949년 유승화(劉承華)박사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돌아갔지만 광복후 열악한 시설과 폐외과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시절에 성공적으로 폐수술을 시행하여 폐절제에 대한 외과적 요법의 기초를 다지고 그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이분들의 큰 업적이 아닐 수 없다.

6·25의 수난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요양소 운영도 점차 궤도에 오르고 환자치료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던중 1950년 6월 25일 불의의 6.25 동란이 발발하여 요양소는 일대 혼란과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죽지세로 남하하던 북한 공산군은 慶州, 大邱, 馬山을 잇는 방어선에 총공세를 취하고 아군은 일대 반격을 가하는 등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는데 그해 8월 3일 소장이하 다수 직원들과 일부 환자들은 긴급히 부산 방면으로 피난가고, 요양소 사수와 환자보호를 위하여 잔류를 지원한 최창문(崔昌文)총무과장과 일부 직원, 그리고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78명의 환자는 그대로 남았다.

그날 마산 바로 인근의 진동(鎭東)까지 공산군이 진출하여 피차의 포성과 UN공군기의 폭격음이 설세없이 울리고 병동 뒷산에 UN군 병사들이 기관총좌(機關銃座)를 파는등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예비적 방어행동으로 일제 사격을 했는데 불행히도 유탄에 환자 한사람이 복부에 총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놀란 환자들은 모두 해변가의 방공호와 일부 관사로 피신했으며 며칠후 전세가 호전되자 최창문(崔昌文)총무과장은 피신한 직원과 환자들을 설득해 복귀토록 했다.

1950년 8월 19일에는 비상운영 계획을 선포하고 식량재고를 감안하여 환자급식을 두끼로 줄이고 직원은 공휴일 없이 24시간 비상근무토록 하였다. 그후 UN

군의 반격으로 후방이 안정을 되찾자 부산방면으로 피난갔던 소장이하 전직원과 환자들이 돌아와 요양원은 점차 정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내성검사법 개발

객담검사와 함께 결핵의 진단과 치료에 불가결한 엑스선 촬영과 투시는 개원 초부터 김권태(金權泰)씨가 1941년 상이군인요양소시설에 설치된 일본제 구형 엑스선기계와 1946년에 설치된 미군 야전용 Picker 엑스선기계 두대로 기사 2명, 조수 1명과 함께 담당하였다.

투시는 주로 인공기흉과 인공기복 수술 전후에 그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매주 주치의별로 시행되었으며 촬영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입원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기관지촬영, 신장촬영, 위장투시촬영도 가끔 행하였다. 김권태(金權泰)씨는 1977년 정년퇴직때까지 31년간 한결같이 그곳 엑스선실을 지킨 숨은 일꾼이었다.

객담검사는 1945년 서울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47년 요양원에 부임한 유순자(柳順子)의무관과 국립중앙방역연구소에서 BCG 생산에 종사하다가 결핵 발병으로 입원했던 정흥모(鄭興模)기사가 퇴원후 1948년부터 그곳 임상병리시험실에서 함께 일하였다.

일제시대의 낡은 검사기재 밖에 없던 시험실에 정흥모(鄭興模)기사가 국립중앙방역연구소 이병학(李炳學)소장에게 요청하여 새 장비 도입으로 안쓰게 된 검사기재를 요양원 GMC 트럭으로 한차

싣고 와서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순자(柳順子)의무관은 부임초에는 환자 진료만을 담당했으나 당시 문창모(文昌模)원장의 지시로 시험실로 가게 되었는데 종전의 단순도말(塗抹)검사 외에 1948년부터 집균(集菌)검사와 배양검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1951년에는 국내 최초로 결핵약제 내성검사법을 개발했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 없이 미국의 결핵학술지 American review of Tuberculosis를 통해 그 방법을 연구 개발하였다. 그 결과를 그때 육군의학잡지에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요양원 시험실에는 6·25전 국립중앙방역연구소 결핵부장으로 있던 서인수(徐仁銖)박사가 약 1년간 결핵군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다시 방역연구소로 돌아갔으며 유순자(柳順子)의무관은 1954년 수녀원으로 들어가 1957년 수녀가 되었다. 정흥모(鄭興模)씨는 1978년까지 시험실장으로 일하다가 국립마산검역소장으로 영전하였다.

필자는 유순자선생의 그후가 궁금해서 수소문 끝에 1995년 7월 대구의 살트르성바로수녀원으로 그를 찾아가서 만났다. 그것은 41년만의 상봉이었다. 78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밝고 건강하고 활기에 차 있었으며 수도(修道)에 정진하면서 이따금 수녀원내의 환자진료도 한다는 얘기였다. †

지면관계로 이 후의 기사는 한국결핵사에 수록기로 하고 다음호에는 「6·25 동안과 결핵」을 신겠습니다.